

2015학년도 연세대 모의논술 정답가안 및 풀이과정 (인문 계열)

이유섭(오르비 논술팀)

병상에서 쓰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입원 4개월째에 접어드네요...

<문제 1>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풀이 과정

가 :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에는 관계가 없다
 노예면 훌륭한 노예여야 한다. 비록 처벌 고통 횡포라도
 그래야 행복하다.

나 : 한 사람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다
 다 : 개인의 행복의 합이 공동체의 행복이다

	S 개인의 행복	V	O 타인의 행복
가	대구법 활용 주인의 운명을 타고 났다면 그에 따라 훌륭한 주인 노릇을 해야 진정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대구] 노예의 운명을 타고 났다면 그에 따라 훌륭한 노예 노릇을 해야 진정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남편(개인)의 행복	침해	아내(타인)의 행복
다	개인의 행복	총합을 최대화	공동체(타인)의 행복

비교기준 1 :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 여부 (가/나다)
 비교기준 2 : 한 사람이 행복하면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가,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할수록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는가 (증진/침해 여부)

<문제 1>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정답 가안

제시문 가,나,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 때 이들의 논지는 우선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를 인정하는가의 여부를 두고 가와 나,다 간 차이점을 보이며,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가의 여부를 두고 나와 다 두 제시문 간에도 논지의 차이점을 보인다.

제시문 가의 논지 하에서는 나,다와 달리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가에 따르면, 주인의 운명을 타고난 이는 훌륭한 주인 노릇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이를 그대로 해석할 경우 노예의 운명을 타고난 이라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한 노예 노릇을 해야 비로소 행복해진다. 즉 개개인의 행복은 개개인의 처한 상황에 의해 결정되며 타인의 행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나,다의 논지 하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상관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나와 다의 논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이는 곧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는가, 혹은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가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나의 일화에 따르면, 집을 나서는 남편 때문에 아내는 불행해진다. 이를 일반화하면 한 개인의 행복은 다른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반면 다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공동체란 개인들의 총합이므로 곧 공동체의 행복이란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이다. 따라서, 각 개인들이 행복하면 행복해질수록, 타인들(공동체)의 행복 역시 증진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한 개인의 행동이 전체 구성원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크다면 이는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떠나 타인 역시 행복하게 하는 행위가 된다. (902자)

CHECK POINTS

- 제시문 (가)의 독해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대구법을 활용해야 논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초 절기교 1장 ‘육과 대우’ 에서 다룬 내용과 함께 대구법을 활용하는 방법 역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절대구조에서 다루는 사과/배 기법의 2번 문제 활용법은 3자가 등장할 경우 예외없이 통합니다. 2014학년도 인문계열이 가다/나 였듯이 2015 인문 모의고사의 경우 가/나다 - 나/다 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최근의 연세대 삼자비교 문제에서는 SVO에서 동사 부분을 한 곳은 2글자의 한자어, 한 곳은 느슨하게 풀어 줍니다. 2013학년도 아름다움 문제에서 그랬고, 여기에서도 다의 ‘증진’의 반대 의미인 ‘침해’의 경우 수험생 여러분께서 직접 조어(造語)하셔야 합니다.

〈문제 2〉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을 근거로 삼아, 제시문 (라)의 도표에 나타난 국가군 B와 C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지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풀이 과정

● 나의 경우 : 편차가 작을수록 행복하다. [비례1]
어떠한 개인의 행복이 다른 개인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 다의 경우 : 산술평균이 높을수록 행복하다. [비례2]
다의 공리주의의 경우 개인의 행복의 합 = 공동체의 행복이므로

따라서 나의 입장에서 B와 C 국가군 가운데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곳은 표준편차가 작은 C국가군이다.

반면 다의 입장에서 B와 C 국가군 가운데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곳은 산술평균이 높은 B국가군이다.

〈문제 2〉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을 근거로 삼아, 제시문 (라)의 도표에 나타난 국가군 B와 C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지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정답 가안

표준편차가 행복도의 분포의 넓고 좁음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제시문 라의 도표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B국가군의 경우 각 국가들의 행복도의 산술평균이 높지만, 국가들의 표준편차 역시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이 국가군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응답자들의 행복의 합은 크지만 응답자들 간의 행복도의 격차 역시 큰 것을 의미한다. 즉 행복한 이들이 많이 존재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불행하다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반면 C국가군의 경우 각 국가들의 행복도의 산술평균은 작지만, 국가들의 표준편차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이 국가군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응답자들의 행복의 합은 작을지라도 응답자들 간의 행복도의 격차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즉 행복하다는 이들의 숫자는 B국가군보다 작을지라도 상대적으로 불행하다 느끼는 이들의 숫자는 B국가군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논지는 어떠한 개인이 행복해짐으로써 다른 타인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행복도의 정도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B와 C 국가군 가운데 나의 입장에서 보다 더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비록 전체 행복도를 나타내는 산술평균의 지표가 낮을지라도 표준편차가 작기에 어떠한 개인의 행복이 다른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C국가군일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반면 나의 논지는 개인의 행복의 합이 커질수록 타인, 즉 공동체의 행복의 합이 커진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곧 행복도의 정도가 넓게 분포되어 있을지라도 전체 국민의 행복도가 높은 국가가 보다 더 행복한 국가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술평균이 높은 B국가군이 산술평균이 낮은 C국가군보다 나의 입장에서 보다 이상적으로 여겨질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산술평균이 높을수록 전체 행복도의 합이 높기 때문이다. (924자)

CHECK POINTS

- 문제 자체는 쉬운 편에 속하지만 제시문 (라)가 보다 수리적인 경향을 띄고 있음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항에서는 인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수리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에 불과하였으나, 2006학년도 연세대 논술 모의고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찾아보시면 수리 개념을 인문적 이해에 적용시키는 반대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